

## 세계평화기원문

만물이 스스로의 존재를 형형색색으로 알리는 상서로운 절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의미속에서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도반들께서 일심으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유서 깊고 아름다운 절강성 영파시에 함께 하였습니다.

현시대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경향에 따라 지역정세에 긴장이 더해지고, 세계 곳곳은 분별없는 테러로 인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걱정과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삼국의 불교도들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평안을 실현하겠다는 종교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시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드라망의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일이 세상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인과세계를 조금만 관조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세상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같은 시간대에 누구나 손쉽게 듣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역동적인 삶속에서 정적인 내면의 수행은 미래를 대비하는 원동력이자 밝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의 화목과 인류의 평안을 위해 깊게 성찰하고 여기서 비롯한 보살행의 마음가짐이 현시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다짐이 범사회적인 실천으로 승화하는 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하기 위한 자아성찰의 수행이 바로 인드라망 세계에 가져올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신 이후, 그 법맥에 따라 한국·중국·일본의 불

교인들은 불법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자비정신의 실천으로 나와 이웃, 사회와 국가를 넘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 변화가 바로 세상의 변화이며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내안의 평화가 주변의 평화로,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중일 불교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인연을 깊이 새기고 상호 신뢰와 유대가 언제나처럼 든든한 가운데, 인류 모두가 타인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을 덜어가는 길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불제자로서 불은에 보답하고 정토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합시다.

고대 한·중·일 삼국의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유서 깊고 아름다운 해상도시 영파시에서 제1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뜻 깊은 결실을 만들어 가고 성공적 회향을 통해 동북아 불교교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